

활동 보고서

화학생물공학부

이세미

안녕하세요 2019년 가을학기에 포르투갈 리스본 공과대학(IST)에 파견되었던 화학생물공학부 이세미라고 합니다.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해보는 것이 제 대학생활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약 5개월간의 시간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쯤은 해볼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혹여 고민중이시라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파견국 뿐만아니라 주위의 다른 나라로 많이 여행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포르투갈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행한 국가들 중 포르투갈만큼 날씨가 좋았던 나라가 없었으며, 포르투갈 내에도 예쁜 바다들이 많으며 저가항공을 이용하면 주변의 나라들로 저렴한 가격에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출국 전

출국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하는 것은 항공권과 비자 그리고 숙소 입니다. 왕복항공권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이 되며, 기타 중요한 제출 서류들은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류들을 차례대로 빼놓지 않고 준비하시면 비자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행정처리 속도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편입니다.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약 6주가 걸렸습니다. 포르투갈이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이 많지 않아 비자받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몰려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숙소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지만 선착순으로 약 20명 정도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대부분 밤 늦게 메일이 오곤 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나 중요한 정보들은 Ana라는 분에게서 메일이 옵니다.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 Ana에게 대략적인 기숙사 신청일을 문의 하시면 알려주시니 잘 기억했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비용은 한달에 155유로 한화로 약 20만원정도이며 세탁기와 건조기는 1회당 1.5유로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불과 베개 같은 것은 기숙사에서 제공이 되므로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어 지하철로 20분 가량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르투갈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화에 끼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숙사에 떨어지게 되면 따로 어플을 통해 집을 구해야 하며 기숙사에 비해 약 3배정도 비쌉니다. 또한 중요하게 해야하는 것중 하나가 수강신청 입니다. Ana라는 분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링크를 통해 개설된 강좌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개강 이후에도 수정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듣고 싶은 강좌를 모두 신청한 후에 처음 1주일 정도 수업을 들어 본 후 결정하였습니다.

2. 출국 후, OT기간

9월 2째주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OT기간이 존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메일로 이에 대한 정보가 오니 잘 보셨다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핑수업부터 보트파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 하시면서 친구를 사귀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각 조별로 멘토가 배정이 되는데 멘토에게 학교 생활 중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등을 물어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꼭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때 교통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서 줍니다. 만 23세 이하의 경우 25% 정도 교통권을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서류에 이름과 주소등 인적사항을 적어 역에 있는 인포메이션에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이 가능한 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검색 후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서류에 화이트를 칠하게 되면 직원분이 다시 받아오라고 하므로 학교에서 여분을 받아 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기 초라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몰리므로 약 2시간 이상 걸리며 카드를 찾는 데에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한달에 30유로, 한화로 약 4만원에 리스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업

수업은 9월 3째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국전 신청한 강좌를 수강하면 되는데 개강 후 약 한달 넘게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이미 수강신청한 강좌를 취소 할 수도, 새로운 강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ntegrated chemical engineering, catalysis and catalytic processes , environmental technology 이렇게 세가지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총 5년으로 이루어지며 1-3학년은 학부생 과정 4-5년은 학사과정입니다. 학부생 과정은 포르투갈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대학원생 과정만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대학원 과정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수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크게 겁낼 필요 없지만 학부생 3학년 이상 수료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2학년과정까지만 마치고 파견 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PASS를 받으면 됩니다. 20점만점에 약 10점 이상이면 pas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적은 제가 문의해본 결과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간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지난 3개년 혹은 5개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6점 이상을 받으면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다른 학생보다 잘 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르투갈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잘 도와주는 편입니다. 또한 시험에 가까워지면 교수님께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올려주시는데 시험 스타일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공부해도 수월하게 pas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 test1/test2 , exam1/exam2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st1은 중간고사 test2는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est를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 시험범위를 반으로 나누어 받은 test1 즉, 중간고사에 보편되고 나머지 받은 test2 즉, 기말고사에 보게 됩니다. test1은 학기중, 가을학기 기준으로 11월에 있고 test2 와 exam1,2는 종강후에 1월 혹은 2월에 치루게 됩니다. exam의 경우 전범위 입니다. test가 아니라 exam을 선택하시게 되면 1월중에 시험 한번만 보면 됩니다. 만약 test1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1월 중에 test2가 아니라 exam 1 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m1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1월 말이나 2월초에 있는 exam2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목에 따라 test가 아닌 exam만 있는 과목도 있으니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지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니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학교내에 파는 곳이 존재하므로 미리 사놓으셔서 시험 보는 장소로 들고 가면 됩니다.

4. 교환학생을 하며 느낀 점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 왔지만 지난 5개월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기중에는 공부하느라 바빠 포르투갈 주위의 해변과 스페인 세비야 정도 밖에 다녀오지 못했지만 시험을 다 치루고 나서 영국,프랑스,이탈리아를 여행하였습니다. 유럽내의 국가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하실 수 있으니 먼 유럽 대륙에 가신 만큼 여러나라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에 익숙치 않으므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초급 포르투갈어 수업을 수강하시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들끼리는 대부분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어느정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지만 많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도 보았고 6개월간 영어로 생활을 하다보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느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 수업이긴 하지만 학부생 3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따라갈만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인생에 한번쯤은 꼭 교환학생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